

# 몬트레이 한인 천주교회



303 Hillcrest Ave. Marina, CA93933

연중 제 4 주일 2023 년 1 월 29 일 (가해) 5 호

- ◆ 주임신부 이종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831) 220-1209
- ◆ 사목회장 정영순 크리스티나 (831) 737-0081
- ◆ 미사: 주일 미사 오후 4 시, 목요 미사 오후 6 시 ◆ 고해성사: 미사 시작 30 분 전
- ◆ 성체 강복: 매달 첫째 목요 미사 후 ◆ 봉성체: 매달 셋째주 금요일
- ◆ 레지오 모임: 그리스도의 모후 목요일 4 시, 바다의 별 목요일 4 시반
- ◆ 성령기도회: 목요 미사 후



2023. 1. 22 설 미사

†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스바 2,3; 3,12-13

화답송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 복 하 여 라, 마 음 이 가 난 한 사 람 들  
하 늘 나 라 가 그 들 의 것 이 네. Fine

제 2 독서 1 코린 1,26-3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복음 마태 5,1-12 L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입당 78

봉헌 219

성체 성가대

파견 34

† 전례 봉사

복 사	강석우 안드레아, 이수지 데레사
독 서	곽신철 어거스틴 (1), 한은희 세실리아 (2)
해 설	명정옥 마리요셉
봉 헌	허웅복 안드레아, 허태남 소피아

미사 참례자수

주일 미사 (1/22) 47 명

## 우리의 정성

주일 헌금 (1/22): \$282

교무금: 박찬원 (11~1), 장근분 (1~3), 한은희 (1), 익명 (2)

사제관 건립 기금: 총액 \$89,334.32

## 기도해 주세요



김재희 헬렌, 송정옥 프란치스카, 알리샤 라우시, 양화자 소화 데레사  
전경순 쟈마, 정영숙 레지나

##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영기 제노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몬트레이 한인성당 신자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고마움 기억하며 또다시 선한 목자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월 2일(목) 목요 미사 후 성체 현시 및 성체 강복이 있습니다.
- 2월 17일(금) 봉성체가 있습니다. 구역장님들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월 18일 (토)"장보러 가세"가 있습니다. 10 시에 성당에서 산호세로 출발합니다. 차량 문제로 15일까지 구역장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 묵상 나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까?”

하루를 지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충돌 속에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말을 하지 않기도 또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각자 나의 생각이 맞다 주장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한번 가진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도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께 묻지 않고, 끊임없이 내 주장만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헤로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을 닮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어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끊임없이 하느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느님 당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정 당신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느님,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까.